

# 올림픽 주어진 비엔날레 1년 놀리나 제주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 제대로 짜야

내년 5월 연기 약 1년 남아  
용역업체와 계약체결 아직  
코로나에 19억 활용 불투명  
온라인 채널 확대 등 감감



제주비엔날레를 주관하는 제주도립미술관 전경.

20개국 70여명의 작가가 참가할 예정이던 두 번째 제주비엔날레를 내년 5월로 연기했지만 향후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관련 예산 확충이 시급한 제주도의 정책 결정을 감안하더라도 비엔날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8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2회 제주비엔날레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현재의 추세로는 해외 작가들의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해 연내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내년 5월 연기 소식을 전했다.

제주도가 4월 8일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고 약 두 달 뒤 내년 연기가 확정됐다. 제주비엔날레는 이 과정에서 격년제 국제전임에도 3년 주기로 모자라 올림픽처럼 4년 주기가 되어 버렸다. 이 과정에 예술감독과 일부 국내 작가들이 용역업체와 도립미술관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양측 사이에 해명, 재반박 등 갈등이 드러

나고 있다.

이는 제주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를 결정한 제13회 광주비엔날레와 대조된다. 지난 5월 14일 제13회 광주비엔날레는 9월로 예정됐던 행사를 내년 2월 26-5월 9일로 연기한다면서 전시와 퍼블릭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 출판물 등 온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순환되는 현대미술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과 실험정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도립미술관은 앞서 2회 비엔날레를 3년 주기로 늦추면서 더 많은 준비를 통해 1회보다 나은 국제전을 펼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래서 사전 준비 예산으로 4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4년 주기라면 한층 개선된 비엔날레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더욱

이 ‘코로나 후’를 고려한 온라인 소통 확대 등이 요구되는 시기다.

하지만 비엔날레 분위기를 띄우고 사전에 관람객과 공유할 프로그램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회 제주비엔날레 예산으로 올해 19억원을 확보했지만 잠정 중단 결정에 따라 도립미술관은 지난 3월 17일 선정된 용역업체와 지금껏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온라인 채널로 활용 가능한 2회 비엔날레 홈페이지도 지금까지 외부에 열리지 않고 있다. 제주비엔날레는 전시에서 홍보까지 용역업체가 대행해 치르는 방식이다. 도립미술관 측은 “용역업체와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해당 예산을 비엔날레 관련 사업에 투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2017~2021년 5개년 계획  
12개 과제 58억 투입 제시  
연도별 실행계획 점점 손바  
조례상 계획 주기도 어긋나

연도별 투자 계획이나 실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술인 사회 안전망 강화’에 따른 실천과제로 제시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는 제주도문화예술위원회로 대체한다고 했으나 해당 위원회에서 증진계획을 다루거나 예술인 복지 논의를 벌인 사례는 거의 없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내 문화예술인 복지지원팀 신설 방안을 담은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도 2018년 설치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다. 예술인복지와 창작 여건 실태조사는 2018~2020년을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예술인 권의 신장과 일자리 창출’ 실천전략에 포함된 청년예술인 인턴 지원, 예술인 창업자금 지원 역시 이름 뿐인 과제다.

더욱이 증진계획 수립 주기는 문화예술인 복지 조례와 어긋난다. 조례는 증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

한다고 했으나 해당 계획은 5개년으로 짜여졌다. 실태조사 역시 조례에 언급되어 있는데,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자료 성격으로 명시됐다. 이 경우 3년마다 실시하는게 아니라 2년이든, 4년이든 수립계획 시행 시기와 주기를 맞춰야 한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애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계획”이라는 반응이다. 가령, 예술인 담은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도 2018년 설치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다. 예술인복지와 창작 여건 실태조사는 2018~2020년을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예술인 권의 신장과 일자리 창출’ 실천전략에 포함된 청년예술인 인턴 지원, 예술인 창업자금 지원 역시 이름 뿐인 과제다.

이에 대해 도 문화정책과 윤진남 과장은 “제주문화재단과 조만간 워크숍을 열 예정인데 이때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 검토 등 코로나19와 맞물려 예술인 복지 정책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문힐 뻔한 ‘제주 첫 서양화가’ 작품 회생 절차

김인지의 1953년 유화 2점  
저지 공공수장고 보존처리



자칫 문힐 뻔했던 제주 작곡가의 미술품이 회생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예술 공공수장고’는 ‘제주 최초의 서양화가’로 불리는 김인지(1907~1967) 선생의 유화 2점을 보존 처리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보존 작업 대상 작품은 제주도에서 보관해왔다. 공공수장고가 가동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잠들어있던 작품이 발견됐다. 해당 유화 2점은 1953년 작품으로 제주풍경을 담고 있다.

김인지 선생은 1934년 동경사범학교 도화강습과를 수료하고 조선미술전람회 양화부문 입선을 시작으로 다수의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1955년 제주도미술협회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 중 한 명이다.

도립미술관은 공공기관에서 이관·관리되는 작품 중 훼손 정도가 심하고 지역 미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

보존 처리 작업에 나서는 김인지 유화 작품. 네모로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복원 작업이 이루어진다.

친 작곡가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보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존처리는 작품별 상태 조사, 기술자 문, 훼손부위 접합, 클리닝, 그림층 접착과 매움, 색맞춤의 수복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작품은 상태 조사 결과 물감 색 변질과 갈라짐, 화면 찢김, 물감층 떨어짐이 확인되고 곰팡이와 백화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화 작품은 특성상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민감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그림 표면이 변형되는 등 손상이 잦다.

최정주 도립미술관장은 “그동안 손상된 미술품 보존처리를 위해 육지로 보내야하는 운송 절차와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되었다”며 “자체 복원된 작품은 올해 하반기 기획전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공수장고는 포화상태에 다다른 공립미술관 수장을 개선 등 공공기관 미술품 수장전용시설로 지난해 6월 문을 열었다. 개관 이후 미술품보존처리를 갖춘 뒤엔 가장 먼저 공립미술관 야외 조각품 보존 처리를 진행했다. 진선희기자

### 문화가 쫓겨

#### 공연예술단체 지원 공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이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중단된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JFAC 아트러닝’ 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연문화재단연합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시행하는 긴급지원 사업으로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과 공연예술단체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공연워크숍, 교육, 연구와 같은 창작 전 단계 준비과정과 홍보, 마케팅 등 기획역량 강화과정 등이 지원 대상이다. 창작준비지원 300만원, 예술역량강화 지원 50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6월 15일부터 29일까지다. 문의 800-9131.

#### 돌문화공원 체험 키트 제공

제주 돌문화공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맞춰 체험 키트를 활용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집에서 함께하는 화산지질 어린이박물관대학-화산심제주, 어떤 만들어져있고?’라는 이름 아래 화산폭발 실험 키트, 다공질 현무암 만들기 키트, 제주의 동자석을 도기에 그려 표현해 볼 수 있는 키트를 활용해 매차 시 3회 과정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키트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돌문화공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신청은 50명을 모집한다. 키트는 매뉴얼북과 함께 신청한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배송돼 아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집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끈다.

#### 여성영화제 요망지니 모집

(사)제주여성민회가 9월 16~20일 ‘우리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제21회 제주여성영화제 자원활동가 ‘요망지니’를 모집하고 있다.

자원활동가들은 요망지니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온·오프라인 사전 홍보, 요망지니 커뮤니티 활동, 영화제 스태프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일정 기간 활동 수료 시 활동 인증서 발급과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부여되고 9월 영화제 기간엔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모집 기간은 6월 28일까지로 신청 링크(<https://bit.ly/21volunteer>)를 이용하면 된다. 합격자들은 7월 4~5일 1박 2일 워크숍에 참여해야 한다. 문의 756-7261.

태양광 주택 | 태양광 발전소 | 전기공사업  
벤처 인증 기업 | 인공지능 태양광 제어기술 보유

네이버 검색창에 '나눔에너지'를 입력 해주세요.

## 제주도 로컬 태양광 강소기업 나눔에너지

###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특별 신상품 출시!

SMP와 REC 판매가격 하락 추세로 사업이 고민되시는 신규 사업주님들을 위한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b>기본형</b> 1kW 시공단가 107만원 부터 ~	<b>고급형</b> 1kW 시공단가 112만원 부터~	<b>프리미엄형</b> 1kW 시공단가 117만원 부터~
--------------------------------------	-------------------------------------	---------------------------------------

(공통 사항: 하자 보증 이행 기간 5년)

2020. 04 3년 연속 제주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2019. 06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 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02 미국 Pingo Solar 와 기술 협약 체결

**나눔에너지**

\*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064-745-0420 FAX.070-8812-0420